

- 목 차 -

- ➔ 1. 농업연관 1,2,3차 산업
- 2. 계육산업의 삼장통합
- 3. 통합경영과 삼장통합
- 4. 소비지지향 계육산업
- 5. 삼장통합과 농장기능
- 6. 삼장통합과 공장기능
- 7. 삼장통합과 시장기능
- 8. 부분통합과 완전통합
- 9. 기업통합과 협동통합
- 10. 소유통합과 계약통합
- 11. 통합주제와 사육주제
- 12. 삼장통합의 이익배분

이 시리즈 강좌는 2002년동안 12회에 걸쳐 매월 계속된다. 박영인박사는 우리나라에 통합경영과 자조금 제도를 맨 처음 소개하여 그 시련에 앞장섰고 삼장통합(三場統合)이란 새로운 용어도 만들었다. <편집자주>

농 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 농업의 위치도 차츰 상업농 (commercial agriculture) 형태로 변한다. 농업에서 공업, 공업에서 다시 상업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경제의 발전을 의미한다.

Colin Clark는 영국 사람인데 1930년대에 호주에서 일하며 경제발전의 과정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1940년에는 경제 진전의 조건(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이란 책을 출판하여 농업과정을 1차산업, 공업과정을 2차산업, 상업과정을 3차산업이라 불렀다. 다시 말하면 국가경제가 1차산업에서 2차산업,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발전해가는 경향을 설파한 것이다.

농업은, 인간의 기본욕망을 충족시키는 먹거리 산업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에 관계없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항상 공존한다. 그러나 경제개발/산업발전이란 측면에서 보면, 후진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나, 선진국이 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진다. 농·공·상은 다 필요하고, 모두 중요하나, 산업발전정도가 그 경중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산업을 고도화하면, 전통적인 농업의 독자성이 약해지고 농업관련 공업 및 상업의 지배/영향하에 놓이게 된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50년대에 커다란 변화의 경험을 했다. 그때 식품가공, 슈퍼마켓, 고속도로, 자동차가 일반화함에 따라 먹거리 부문(food sector) 가운데 원료공급하는 농장보다 그 이후의 가공공장과 유통시장의 위력이 커지고 돈도 더 번 것이다. 식품총체로도 규모나 소득면에서 1차산업인 농업과 비교할 때 관련 2,3차산업의 중요성이 점점증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1955년에 John Davis는 농업(agriculture)과 농업관련 2,3차사업(business)을 연계하는 AGRIBUSINESS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 이어 하바드 대학은 1957년에 애그리비즈니스의 개념(A Concept of Agribusiness)이란 역사적인 책자를 출간하여, 오늘날, 광의로는 농업관련 1,2,3차산업의 총칭, 협의로는 농업관련 2,3차산업(공업 및 상업기능)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게 했다. 농업과 관련사업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즉 농장안(on-farm)과 농장밖(off-farm)의 기능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종래의 농업개념이 이렇게 널리 확대되었다.

WTO시대의 농업은, 옛날의 농장중심인 농사(farming)만이 아니고, 최종 소비를 지향하는 농장, 공장, 시장의 통합적인 사업(integrated business)으로 변모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농업에도 이제는 이러한 개념이 상당히 배어 있고, 계육산업은 바로 선두주자인 것이다. 세계가 하나인 시장에서 소비자 만족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요즘, 1,2,3차산업은 각각의 기능을 잘 발휘하여 공생/공존해야 한다. 같은 배를 탄 농·공·상은 통합/조정되는 가운데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공동운명에 놓여 있다. C